



희민주당(SPD)은 45%, 자유민주당(FDP)은 72%, 녹색당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민주당 당원으로서 기존의 모든 원자력발전소 폐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44%가 되어, 지지와 폐지가 확실하게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크리스트교민주·사회동맹 당원이 3%, 사회민주당 2%, 자유민주당 2%, 녹색당 3%로 나타나 어느 당원이든 원자력발전소의 조기정지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발전의 이용이 앞으로 수십년내에 전부 중지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크리스트교민주·사회동맹 당원이 47%, 사회민주당 50%, 자유민주당 41%, 녹색당 46%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原子力發電所 建設을 計劃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전력수요가 연평균 15% 정도로 대폭 신장하고 있다. 특히, 전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자바섬에서는 2015년에 약 2,700만KW 정도의 공급력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기존의 석탄·석유·수력·지열 등의 에너지로는 이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어서 600만~900만KW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작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공급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준비 개시의 정부결정이 내려졌다.

인도네시아原子力廳의 아힘사장관은 立地·환경조사는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면밀한 진행을 위해서는 13~14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초의 상업로 운전개시는 2003~2004년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의 자바섬의 전력수요량 가운데 기존에너지로는 부족한 공급력을 700만KW로 예측했을 경우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는 7기, 60만KW급으로는 약 12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出力은 미국과 일본 및 그밖의 선진국 원자로공급업체의 제안을 받게 될 것이며, 금년내에 시작될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아힘사장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原子力廳에서는 700만KW분량 전부를 원자력에 의존할 계획이지만, 최종결정은 국가에너지조사위원회에서 내려지게 되는데, 전량을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방법 외에 현재 국내 발전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천연가스를 일부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최초의 상업로 입지후보지점은 자바海에 인접한 중부자바의 무리아반도부근으로서, 이 지역은 조용한 內海側으로 암반도 견고하므로 입지후보지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힘사장관은 초호기는 수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30% 정도는 국산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호기 부터는 점점 국산화 비율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